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2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최진혁 과장, 성상훈 주무관(02-2110-5155)		

스마트폰으로 전자영수증에서 주차정산까지 한번에
- 지경부, NFC기반 전자영수증·스마트쇼핑 사업자 선정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주차정산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NFC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업자로 신세계백화점과 보광 훼미리마트를 선정

* 12.13일(화) 개최된 'u-IT 신기술검증확산사업 심의위원회'에서 신세계백화점(정부 7억, 민간 12.9억), 보광 훼미리마트(정부 6.5억, 민간 12억) 선정·지원 확정

○ 내년 5월까지 1~2개 매장 대상 시범 운영 후, 12년 말까지 신세계백화점 및 훼미리마트 전국 매장으로 확산

* 신세계백화점 : ('12.5월) 경기점(죽전) → ('12.12월) 전국 10개 매장으로 확산
보광 훼미리마트 : ('12.5월) 1~2개 매장 → ('12.12월) 전국 6,500개 매장 확산

□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구축되면 기존 매장에서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대체, 스마트폰에 전자형태로 발급·관리 가능

○ 전자영수증 서비스 확산시 연간 230억원(63억건)의 불필요한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이 절감되며,

○ 종이영수증·주차정산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던 절차를 NFC를 활용,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서 NFC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* NFC폰 사용자는 '11년 기준 300만명에서 '12년까지 1,300만명으로 급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, 현재 NFC 서비스는 모바일 결제에만 국한된 상황

【 발급 방법 】

○ NFC폰 사용자는 전자영수증 앱을 다운받은 후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전자영수증 발급

* 갤럭시S2 및 옵티머스 등 최신 LTE폰 등에는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모바일결제 및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용 가능

○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도 전자영수증 앱을 다운받은 후 현금영수증처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, 메시지 형태로 전자영수증 발급

【 활용 방법 】

○ 영수증은 상품의 교환·환불 및 A/S의 증빙자료로 사용되나, 기존 종이영수증은 훼손·분실 우려가 높아 소비자 불편 가중

* A씨는 3일전 구입한 가방 환불을 위해 백화점을 방문하였으나, 구매시 발급된 종이영수증을 분실하여 환불을 거부당함

* B씨는 노트북 A/S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, 영수증을 분실하여 무상 A/S 기간임에도 불구 유상으로 A/S처리

➡ 전자영수증은 스마트폰에 직접 발급받고, 필요시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훼손·분실 우려 없이 교환·환불 가능

○ 영수증은 백화점·할인마트에서 주차 정산시 사용하므로,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종이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함

➡ 전자영수증과 백화점 주차시스템을 연동,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주차요금 자동 정산

*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은 NFC폰 사용자가 주차장 출구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자동정산·출차 가능

□ 이외에도, 상품권·포인트·쿠폰 등을 스마트폰에 내장, 매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종합 모바일 NFC 존으로 활용할 예정